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혁명사상만세!

#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331호 [무계 제25840호] 주제 106(2017)년 11월 27일 (월요일)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혁명활동소식을

여러 나라와 지역에서 보도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혁명활동소식을 8일부터 21일까지의 기간에 여러 나라와 지역에서 보도하였다.  
베네수엘라의 텔레부스TV방송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금성드락도르공장을 현지지도하시는데 대해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김정은위원장께서는 금성드락도르 공장에서 생산한 새형의 80hp드락도르 《원리마-804》호의 성능과 기술적 특성을 소개하였다.  
그이께서는 시동이 잘 걸리고 운전하기가 편리하며 기동성이 뛰어나고, 외형도 미관하고의 장점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였다. 새형의 드락도르들은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김정은위원장은 새형의 드락도르는 단

순한 물건이 아니라 적대세력들의 공격의 희생양을 무자비하게 짓고 경제개혁의 지름길을 힘차게 열어주는 지역자강의 무쇠철마미라고 하였다.  
김정은위원장께서는 공장재건현대화과업을 제시하시고 공장을 세계적 수준의 드락도르공장으로 전면시공시키 데 대하여 강조하셨다.  
파로스통신, 네발의 신문 《고르카 역스크레스》, 인터넷잡지 《네발 루메이》, 주제사상 및 선군정치연구회 네발지자협회 인터넷포럼에서 《주제-네발》, 인터넷신문 《아시아 카바르 데일리》, 도이첼란드연방연대 인터넷포럼에서 《현지지도소식》, 키에 국제, 국제방송, 7개민족어방송과 나이지리아 김일성-김정일주의 연구 전국위원회, 민주공화국주제사상 연구 전국위원회, 핵무기연구소조선전선협회, 이팔리아-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전선 및 현대성협회, 이팔리아 및 파노주제사상연구센터, 폴스카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학우회를 위한 국제친선발기, 나이지리아에 본부를 둔 조선인민과의 친선 및 현대성 아프리카지역위원회 인터넷포럼에서도 같은 소식을 보도하였다.  
네발신문 《아르판》, 인터넷신문 《오우선 뉴스 포인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3월 18일공장을 현지지도하시고 현대화과업을 제시하신 소식을, 도이첼란드연방연대 인터넷포럼에서 《현지지도소식》은 이 소식과 함께 새로 개건된 평양화장품공장을 현지지도하신 소식을 게재하였다.  
출판보도물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사진문헌들을 모시었다.

## 재일조선사회과학자들의 위대한 스승이시며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 삼가 드립니다

꿈에도 꿇고싶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크나큰 정치적신임과 배려에 의하여 제3차 전국사회과학자대회에 참가하는 영광을 지닌 재일조선사회과학자협회 대표단 성원들은 총성의 한마음을 담아 경애하는 원수님께 삼가 이 글을 올립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세심한 지도속에 성대히 진행된 제3차 전국사회과학자대회는 주제적사회과학발전의 향아를이신 실제적인들의 불멸의 사상과 업적을 후고고수하고 길이 빛내이며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따라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사회과학의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나갈 데와 참가자들의 철석의 신념과 의지를 내외에 힘있게 과시한 의의깊은 대회였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사회주의강국건설과 만민대결전을 승리로 이끄시는 그 바쁘신 속에서도 사회과학자대회에 제일본조선사회과학자협회대표단을 선장으로 불러주시고 크게 해놓은 일도 없는 제일조선사회과학자들을 대회의 앞자리에 내세워주시었습니다.  
저희들은 주제의 봉화가 새겨진 대화합가운을 소중히 품어 안고 대화합가자들의 열광적인 박수속에 대회의 높은 연단에서 드론을 진행할 때나 성대한 연회상을 마주할 때나 총련의 사회과학자들을 남달리 아끼고 내세워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하대같은 믿음과 온정이 너무나 고마와 북받치는 격정을 금할수 없었습니다.  
이런저희들은 제3차 전국사회과학자대회에 참가하여 독창적인 사상론과 탁월한 명도로 주제적사회과학의 시련을 열어놓으시고 자주시대 사회과학의 빛나는 본보기를 마련하여주시기 위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사상과 업적을 더욱 심장깊이 새겨안게 되었습니다.  
특히 경애하는 원수님의 불우의 고전적로작 《우리리 사회과학은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위업수행에 적극 이바지하여야 한다》를 다시금 전발하면서 사상론의 거시성이며 회색의 현실주의이신 경애하는 원수님을 김일성-김정일주의 사회과학의 위대한 스승으로, 어버이로 높이 모시고 삼배 두배하는 영예와 감사를 가슴속깊이 간직하였습니다.  
제휴기간 집행위원들의 명도업적이 뜨겁게 빛났던 김정숙평양제사공장 및 원천신발공장을 비롯한 여러 단위를 참관하면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2차전원회의 결정관철에 떨쳐나선 조국인민들의 불굴의 투쟁모습을 직접 목격하였으며 지역자강의 위력으로 힘차게 전진하는 내 조국의 승리를 파악하고 그 무엇으로도 가모막을수 없는 전례없는 길이 새겨안았습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

## 위대한 김정일각하회고

만마위원회 결성, 공보문 발표

위대한 김정일각하회고 만마위원회 결성식이 15일에 진행되었다.  
만마의 각계인사들이 참가한 결성식에서는 공보문이 발표되었다.  
공보문은 나라의 부강민영과 조국통일, 세계자주화위업실현에 헌정되는 바니신 김정일각하에서 서거하신 때로부터 6년이 되었고 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조선혁명과 인류앞에 쌓아올린

김정일각하의 업적은 오늘날 전인민을 뿌리고있으며 제국주의침략과 위협을 반대하는 세계반제국주의 투쟁을 고무추동하고있다.  
김정일각하는 사회주의조선을 건설사상장군, 군사장군으로 전변시키시어 조선인민의 존엄을 지켜주시신 위대한 령도자이시다.  
그이의 공적은 조선인민과 세계적진보인민들의 심장속에 영원히 아로새겨져있다.  
우리는 집행위원의 서거 6년에 즈

음하여 위대한 김정일각하회고 만마위원회를 결성한다.  
공보문은 만마봉동의학과연구소 소장 린을 위원장으로 하는 회고위원회성원들을 발표하였다.  
또한 회고위원회가 12월을 회고월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에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정중하며 반영하는 사회주의조선의 현실을 소개하는 정치문화행사를 조직할데 대하여 밝혔다.  
【조선중앙통신】

## 자강력제일주의기치를 높이 추켜들고 올해전투를 승리적으로 결속하자

### 당이 제시한 전투적과업을 철저히 관철하여 자동차생산에서 새로운 기적과 혁신을 창조하자

승리자동차련합기업소 종업원들의 열기모임 진행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현지말씀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승리자동차련합기업소 종업원들의 열기모임이 26일에 진행되었다.  
련합기업소 일꾼들, 종업원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모임에서는 련합기업소당위원회 위원장 오일수동지의 보고에 이어 련합기업소 지배인 최정일동지, 산하단위 초급당위원회 리영민동지, 련합기업소 청년동맹위원회 1비서 김광철동지가 토론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명도와 세심한 지도밑에 위대한 자동차 생산기지로 밀어붙여 승리자동차련합기업소를 찾으신데 새형의 5급화물자동차의 성능과 기술적특성을 구체적으로 소개하시면서 당에서 정해진 기간에 화물자동차를 훌륭히 생산

산한 로동계급의 위훈을 높이 평가하셨다고 격정에 넘쳐 말하였다.  
그들은 승리자동차련합기업소 세계적수준의 화물자동차 생산기지로 전면시공시킬 희망한 실 계도를 펼치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기업소를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개건현대화할데 대한 전투적과업을 제시하셨다고 강조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승리에서 더 큰 승리를 이룩하고 혁명의 전성기를 대변영기로 이어나가는것은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손길과 자라난 우리 군대와 인민의 사상정신적 특질이며 무명기쁨입니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몸소 련합기업소를 찾아오시어 당이 제시한 개건현대화과업을 훌륭

히 실천하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며 기념사진을 찍어 주시는데 이어 또다시 수많은 물고기까지 보내주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대해 같은 사랑과 믿음을 영원히 간직하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현지말씀을 빛나게 관철할 결의를 표명하였다.  
집행위원들의 불멸의 령도업적이 깃들어있는 영광의 일터에서 일하는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수명의 유훈관철전, 당정책옹호전에서 영웅적 김일성-김정일로동계급의 투쟁분배를 힘있게 과시해나갈것이라고 그들은 입을 모아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2차전원회의정신을 심장마다 새겨안고 혁명적열의와 때를놓치지 않는 열정을 바탕으로 발양하여 련합기업소의 현대화를 빛나게 실천함으로써 자동차생산에서 새로운 기적과 혁신을 창조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모임에서는 결의문이 채택되었다.  
【조선중앙통신】

### 발전지구에 살림집들을 새로 건설

평양시에

력구역 발전지구에 새로 건설되는 아파트들의 내외부공사가 짧은 기간에 성과적으로 결속되었다. 이 성취는 우리 당의 용대한 수도건설의 높은 사업성으로 나타내어지는 시간의 일꾼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헌신적인 투쟁이 안아온 자명한 결실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평양시에서 거대한성과로건설을 잘하고 살림집과 공공건물, 문화휴식시설들을 비롯한 건축물들을 특색있게 건설하며 잘 관리하여야 합니다.》  
평양시당위원회에서는 인민을 하늘처럼 여기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이미 건설중에 있는 발전지구 살림집건설을 짧은 기간에 끝내 대담하고 튼튼한 목표로 세웠다. 시당위원회의 조직사업에 따라 시안의 여러 구역 일꾼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장전지구 살림집건설장에 달려나왔다. 시당위원회일꾼들이 건

설현장에 지휘부를 정하고 전투조직과 지휘를 짜고들었다. 시당위원회에서는 구역들에 전투과제를 명백하게 주는것과 함께 구역의 책임일꾼들이 건설을 직접 돌리도록 추위가 더욱이 깊어질수록 살림집건설을 계속하도록 요구성을 높여왔다.  
대중의 정진력을 불러일으키는 기동예선운동원들의 힘있는 경제선봉과 방충선전지대로서 울려나오는 노래소리도 온전건설이 부글부글 들끓었다. 사회주의정신이 지휘하게 벌어졌다. 어디서나 따라야시키, 따라야시키, 경합관철운동이 힘있게 벌어지는 속의 공사속도가 눈에 띄게 높아졌다.  
시당위원회에서는 공사속도가 높아지는데 맞게 매일 전투현장에서 총화사업을 실시하게 진행하는 한편 시공지도에 힘을 넣어서 모든 살림집들이 높은 수준에서 완공되도록 전투조직과 지휘를 짜고들었다.  
중구역이 제일먼저 많은 작업과제를 끝냈다. 구역당위원회 일꾼들은 구역의 모든 령방을 건설에 집중시키고 자체보장을

앞세우는 한편 대중속에 깊이 들어가 힘있는 정치사업을 진공적으로 벌여 전투원들의 사기를 적극 북돋아주었다. 일꾼들의 힘있는 정치사업이 인신자격을 고무된 구역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밤낮이 따로 없는 치열한 전투를 벌여 많은 과제를 제일 먼저 끝내는 자랑스런 성과를 거두었다.  
동대원구역에서는 건설장에 능력이 있는 일꾼들을 파견하고 로력과 자재보장을 앞세우면서 공사를 박력있게 내밀었다. 구역당위원회일꾼들은 전투현장에 나가 제기되는 문제를 제때에 풀이주시어 대중과 함께 공사를 제기에 끝까지 끝내는 치열한 전투를 벌였다. 구역당위원회와 구역인민위원회일꾼들은 전투현장에서 앞세우고 로력과 자재보장을 앞세우면서 공사할 때에 불기운을 일으키기 위하여 전투를 벌였다. 구역당위원회 일꾼들은 구역의 모든 령방을 건설에 집중시키고 자체보장을

과적으로 결속하기 위한 단계별 목표를 구체적으로 세우고 시작부터 혁신의 불바람을 세차게 불어넣었다. 그리하여 건설에 착수한 때로부터 불과 20일 남짓한 기간에 많은 작업과제를 기본적으로 끝냈다.  
만경지구와 선교구역을 비롯한 시안의 중심구역들이 많은 전투장소에서 혁신의 불길이 세차게 타올랐다. 책임일꾼들이 새제방을 앞세우면서 돌격전의 선두에서 서서 대중을 이끌었다. 이들은 전진하는 데오의 앞장에서 서서 이신자적의 모범을 보이면서 전투조직과 지휘를 맡고 크고 대담하게 벌여 많은 작업과제를 계획한 날보다 훨씬 앞당겨 끝내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인민사랑의 뜻은 높은 사업성으로 나타내어지는 시간의 일꾼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헌신적인 투쟁에 떠날수록 훌륭히 이루어지는 행복의 보금자리를 련 주민들을 기다리고있다.  
【평양기자 최수복



결사관철의 투쟁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더 많은 주체철을 생산하기 위한 열정을 발휘하고있다. -보신제철소에서- 본사기자 리풍규 특음

## 새형의 드락도르생산용협동품보장에 박차를

각지 공장, 기업소들에서

적으로 보충한 일원으로 가슴 불어주고있는 성, 중앙기관들과 그야래 공장, 기업소들의 일꾼들과 로동계급은 새형의 드락도르를 더 많이, 더 질좋은 생산하는데 이바지한 열의에 충만되어 있다. 올해에 수백대에 달하는 협동품들을 책임적으로 보장한 성과에 도대하여 각지 공장, 기업소들에서는 보다 높은 목표를 내걸고 다음해 드락도르생산에 필요한 부품생산준비를 적극 다그치고있다.  
기계공업성에서 여러 공장, 기업소들에서 생산직업양원의 불길이 세차게 타고있고있다.  
순천기관공장과 최현정밀기계공장, 장서기관부속공장의 일꾼들과 로동계급은 기관제작에 필요한 정밀부품들의 가공을 높은 과학기술적수준에 올

려서주기 위한 사업에서 높은 책임성을 발휘해나가고있다. 중앙계획기계공장에서 국과파워인 연구사들과 창조적역량을 발휘하며 종합기관과 불온도수감부, 연료수감부를 비롯한 여러 측정소들의 성능을 더욱 높이기 위한 창조투쟁, 돌격투쟁을 힘있게 벌이고있다.  
새형의 드락도르생산에 리용되는 다이아보장을 받은 함흥다이아공장의 일꾼들과 로동계급도 임무의 중요성을 깊이 자각하고 높은 책임성을 발휘해나가고있다. 대인중기계련합기업소, 락원기계련합기업소, 구성공기계공장의 로동계급도 드락도르인양기설치용과 각종 변류를 비롯한 중요부품들을 원만히 보장할수 있는 민간의 준비를 갖추고있다.  
평양 328 전선공장에서

각종 드락도르부품을 생산보장하기 위한 준비사업과 함께 유입조항기계공장의 질적수준을 높이기 위한 확고한 기술적담보를 마련해가고있다.  
평양에이평공장과 함흥의 평평공장의 로동자들도 새형의 엔진기계에 들어가는 배아링생산에 막사를 가하고있다.  
안주열연불공장에서 자강기계 일꾼들의 힘을 높이 들고 드락도르의 외형용 현대디자인에 맞게 도장할수 있는 여러가지 질 좋은 도색을 생산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세워나가고있다.  
금속공업성, 제철공업성, 건설기계공업성, 화학공업성, 경공업성, 단원지구공업총국을 비롯한 중요역성, 중앙기관들과 그야래 공장, 기업소들에서도 현대적혁신의 불길이 세차게 타고있고있다.  
【본사기자 최수복

금속공업성의 일꾼들은 드락도르생산에서 요구되는 각종 철관과 열강재 수요를 원만히 보장하기 위한 경제조직사업을 지휘하게 되고있고있다. 제철공업성에서는 무속제재공장을 쓰이는 전기공을 비롯하여 많은 량의 유색금속과 같은 중요한 제품을 제기업내에 보장해주기 위한 조직사업을 원만히 진행하고있다.  
삼천리조명기구공장, 평성형성각공장의 로동계급도 각종 방향등, 조명등, 실내등을 비롯한 조명설비들, 의장물제작에 쓰이는 합성자극을 책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나가고있다.  
남포시당위원회의 일꾼들이 시안의 협동품보장단위들에 내려가 최선적직업사업을 전폭적으로 밀어붙이고있으며 련관단위 과학자, 기술사들을 드락도르 생산을 높이기 위한 과학기술적 문제해결에 박차를 가하고있다.  
【본사기자 최수복



# 영웅적 김일성-김정일로동계급의 존엄과 긍지를 안고

## 상 원 세 멘 트 련 합 기 업 소

###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전초병으로 내세워주시여

우리는 지금 나라의 끝저의 전제 생산기지인 상원세멘트련합기업소의 구내에 서있다.

《우리 식대로 살아가자!》의 구호가 뚜렷이 새겨진 원료싸이로, 주체조선의 전진기마냥 울리는 소성로의 동음, 세멘트수송차들이 잇달아 들어오고 떠나가는 출하장... 비약과 기적창조의 출발선에 선듯 우리의 운명에 세침이 응축된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영웅적인 김일성-김정일로동계급은 주체혁명의 핵심부대, 나라의 맡아볼답게 당의 사상과 위업을 맨 앞장에서 받들며 경제강국건설에서 새로운 혁명적대고조의 봉화를 추켜들고나가야 합니다.》

현장에서 우리와 만난 이곳 당백업일군은 상원세멘트련합기업소를 높이 내세워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하늘같은 믿음을 받아안고 불도 가시처럼 뛰어넘고있는 상원의 로동계급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 또 다시 최고생산년도수준을 돌파하고

당중앙에 기여이 승리의 보고를 드릴 것이라고 확신에 넘쳐 말하였다.

당 제7차대회가 열린 뜻깊은 지난해의 가슴스기운을 사실들을 들려주는 그의 목소리는 격정에 젖어있었다.

주제 105(2016)년 9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는 함북도 북부비해무구에서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을 불러일으키는 호소문을 발표하였다.

당중앙위원회 호소문을 전하는 방충원의 힘찬 목소리가 기업소의 구내에 정경 메아리쳤다.

《북조선에서 제일 건조한것은 세멘트이다.

우리 당이 언제나 제일먼저 쫓는 상원세멘트련합기업소 로동계급이 기지를 먼저 들고 당에서 온 생산과제를 당에서 정해진 기일안에 무조건 완수하라.》

그날 이에 화답하는 상원의 대담인양 북부비해무구전선으로 출발하

는 세멘트수송원차의 기적소리가 명당지구를 진감하였다. 상원의 세멘트가 그처럼 빨리 복구전선으로 떠나게 되는데 사연이 있었다.

지난해 9월 초 어느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함북도 여러 시, 군들이 관공피해를 입었다고, 내가 사랑하는 인민들이 한지에 나앉았는데 겨울이 오기 전에 그들에게 살림집을 새로 지어주어야 하겠다고 하시면서 상원세멘트련합기업소에서 관공피해복구에 필요한 세멘트를 생산보장하도록 할데 대하여 말씀하시었다.

언제나 세멘트분쟁이 제기되면 상원세멘트련합기업소 로동계급부터 생각하시는 그이시였다. 자신께서 상원의 로동계급에게 관공피해복구에 필요한 세멘트를 생산보장할것을 부탁하였다는것을 그들에게 전달해 주라고 하시며 크나큰 믿음과 기대를 표명하신 경애하는 원수님. 그의 숭고한 뜻을 받아안은 기업

소의 로동계급과 기술자들, 일군들의 가슴가슴은 불도가마냥 달아올랐다. 하늘같은 믿음을 담아 하신 우리 원수님의 부름!

60년전 강제 1만2천을 강선의 로동계급에게 호소하시며 나는 동무들을 믿고 동무들은 나를 믿고 우리 함께 조성된 혁명의 난국을 뚫고나가자고 하시던 위대한 수령님의 응성이 장내에 울리는것만 같았다. 역사적인 강선의 회의장에 차넘치던 총성의 열기가 이날 상원의 로동자본회의 관에도 그대로 끓어올랐다.

세멘트수송로의 불길이 아무리 뜨겁다 한들 심장의 피를 쫓아내지 못하는 상원세멘트련합기업소의 열도에 어찌 비길수 있으랴. 그 마음들이 그대로 서전이 되고 소성로의 불길이 되었기에 북부전선으로 향한 세멘트수송원차의 기적소리가 그리도 경쾌하게 울려펴나고 소성로장의 로동계급은 오늘도 격정속에 이야기한다.

어찌 북부비해무구전선만이랴. 지난해 3월, 몸소 현지에 나오셔서 려명기리전선을 선포하시던 그 시각에도 우리 원수님의 마음속에는 상원의 로동계급이 자리잡고있었다.

짧은 기간에 려명기리전선장에 보충해야 할 세멘트의 량도 아슬아슬이었지만 70총살원집을 비롯하여 초고총살원집건설에 필요한 고질세멘트의 개발생산과제는 백대의 분발을 요구하였다.

우리 당의 위대한 사회주의강국건설위업을 받드는 길에서 언제나 전초병이 될것을 바라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믿음을 새기며 상원의 로동계급은 당일에 고질세멘트를 무조건 생산보장할것을 결의하였다. 그들의 가슴속에 차넘치던 경애하는 원수님의 결심은 곧 과학이라는 확고부동한 신념, 그이의 구상을 실현하는 일이라면 하늘의 별이라도 따와야 한다는 결사결전의 정신이 되었다.

바로 그것이 무한한 힘과 지혜를 낳았고 주체적인 고질세멘트생산의 완전성공이라는 자랑스런 성과를 안아왔다.

70총초고총살원집발포공사가 74일만에 완공되고 려명기리전선에서 아청과 서원이 다투게 기적이 창조되던 나날 상원의 로동계급은 당의 믿음에 충정으로 보답할 줄 아는 의리의 인간,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첨단목표를 점령해가는 지역시장의 투사들로 또 한번 성장의 기를 갖추었다.

검사승위, 검사관들의 길에서 한걸음도 물러설수 없다는 철석의 의지, 일단 끌어지면 억척이 되는 세멘트처럼 한풀이 그대로 사회주의강국을 떠받치는 기둥이 되리라는 떠들썩한 각오가 바로 지난해에 불타오르는 상원로동계급의 사상감각이다.

이 사상감정은 상원로동계급이 위대한 장군님의 손아래 제정되던 것이었다.

지금으로부터 30여년전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에

필요한 세멘트분쟁을 해결하길 결심을 품고 새로 건설하는 세멘트공장의 지배인은 자신께서 하려 한다고 깊은 의미를 담아 교시하시었다.

사랑하는 내 조국을 인민의 재부로 꼭 재우실 숭고한 포부와 우리 인민을 하루빨리 행복의 길정에 올려세우시려는 크나큰 이상을 안으시고 상원세멘트련합기업소의 사업에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리시며 따스히 손잡아 이끌어주시던 위대한 장군님이시였다.

어떤 시련과 난관속에서도 당의 뜻을 실현으로 만들어온 상원로동계급의 신념을 전무보서처럼 귀중히 여기주시고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전초병으로 내세워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

상원친기회에 세워진 경애하는 원수님의 친필비어는 이런 글말이 새겨져있다.

《상원세멘트련합기업소는 우리 당의 위대한 강성국가건설위업을 받드는 길에서 언제나 전초병이 되어야 합니다.》

나는 언제나 동지들을 굳게 믿습니다.

김정은

2012. 3. 28

믿음이면 이보다 더 큰 믿음이 또 어디에 있으랴.

사회주의강국건설에서 자기들이 지닌 영예로운 분문을 실증에 건드리고 세멘트중산의 동음을 높이 울려가려는 상원의 로동계급을 대견히 여기시며 혈연의 정을 안겨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

언제나 나아갈 길을 밝혀주는 등대가 되어주고 어려울 때마다 힘과 용기를 북돋아주는 마음의 기둥이 있다면 인간은 두려울것이 없고 못해낼 일도 없다.

우엇이었는가.

상원의 세멘트생산자들은 12월의 피눈물바다에서 일머리고 건설의 대명령기를 가척과 혁신으로 건설하며 앞장섰다. 최고생산년도수준을 연속 돌파해는 나날에 가슴깊이 새겨졌고 더 높은 생산적의향을 일으켜나가는 장군님께서는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에

하고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원수님의 사랑과 정이었다. 상원의 기적은 여기에 원인을 두고있다.

지난해 1월 최고생산년도수준을 돌파한 상원세멘트련합기업소 로동자, 기술자, 일군들의 투쟁성과를 보고받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높이 평가한다는것을 전달하시어라고 친필서한을 보내주시었다. 며칠 후에는 또 다시 최상의 믿음을 전속하원문을 보내주시었다.

명당지구에 넘쳐흐르는 파인향기와 사회주의바다향기, 사랑어린 《아리랑》시력김사기를 비롯하여 상원의 로동계급이 받아안은 은정은 이루 다 헤아릴수 없다.

어찌하여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상원로동계급에게 그토록 사랑과 정을 부어주시는것인가.

《그것은 상원의 로동계급이 언제나 당의 뜻에 살고 당과 승결을 함께 하며 영웅적인 김일성-김정일로동계급의 존엄과 긍지를 높이 펼쳐가기를 마하시어서가 아니라.

상원로동계급 누구나 제일 사랑하는 노래는 《총성의 대담소리》(앞글을 보라)이다.

이 노래와 함께 상원로동계급의 영웅적투쟁과 생활이 번차게 울려왔다. 그것을 진실하고 생동하게 형상하여 무대무여 울린 이들은 음해공여 진행 된 제5차 4월의 몸 인애에울추진에서 추방상을 수여받았다.

정명 칠세위인들의 하늘같은 믿음과 사랑이 상원친의 맑은 물처럼 울려넘치는 땅, 피끓는 심장을 당중앙위원회의 트랙에 이어놓고 경애하는 원수님과 사상도 승결을 맺음도 같이 이하는 총성과 보양의 마음들이 불타이처럼 이글거리는 상원이다.

전에는 세멘트생산선과로 우리 당의 사회주의강국건설사상을 실현하는데 크게 이바지함으로써 경애하는 원수님을 자기들의 일머리에 몇몇하게 보실 일입니다 또다시 새 기록창조투쟁에 떨쳐나선 상원의 로동계급.

세월이 흐르고 강산은 변해도 칠세위인들을 명명지배인으로 높이 모신 상원의 로동계급은 총성의 대담소리와 앞잡음다만을 영원히 높이 울려갈것이다.

본사기자 한영민



상원세멘트련합기업소에는 이곳 로동계급이 걸은 자랑스런 로정을 밀어주는 연혁소개실이 있다.

젊은이는 창조와 비약을 이룩하며 전진하여온 우리 조국의 역사에 삶의 자취를 뚜렷이 새긴 상원의 로동계급. 이룩한 고경한 총성과 위훈의 밀바탕에는 과연 무엇이 놓여있는가.

우리는 연혁소개실에서 이에 대한 대답을 찾을수 있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혁명사적교양실과 연혁소개실을 비롯한 교양거점들을 잘 꾸리며 그들 통한 교양사업을 잘하여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자기 부름과 단위에 깃들여있는 위대한 수령님들과 당의 령도업적을 원히 꿰뚫도록 하며 당과 수령을 충직하게 받들어진 혁명선배들의 훌륭한 모범을 따라 배우도록 하여야 합니다.》

연혁소개실에서 우리의 눈길을 끄는것이 있었다.

위대한 장군님과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이곳 로동계급에게 안겨 주신 고귀한 칭호들이었다.

그 정오를속에 당겨진 사연은 함으로 가슴뜨거운것이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완공된 정류다

리를 돌아보시며 정류다의 2단계와 금동2동굴을 건설할때 대한 전망을 밝혀주시는 때였다.

일군들은 위대한 장군님께 세멘트와 원강제만 있으면 2단계공사도 문제없다고 말씀드리었다.

그러자 위대한 장군님께서 세멘트

상원세멘트련합기업소라는 고귀한 칭호를 수여하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빛내어주시는 상원세멘트련합기업소의 영예는 오늘 경애하는 원수님의 믿음과 사랑속에 더욱 빛을 뿌리고있다.

지금으로부터 5년전 상원의 로동

이때에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이들에게 커다란 고무적힘을 더해 주는 축하전문을 보내주시면서 별진포선을 떠받드는 역전 기동, 사회주의혁명국의 만년미레를 담보하는 추추들이라는 칭호를 안겨주시어 상원로동계급의 영예를 높이 펼쳐주시었다.

위대한 사랑과 믿음에는 보답이 따르기가 쉽다.

당 제7차대회가 열

## 고귀한 부름, 값높은 칭호

경애하는 원수님께 삼가 편지를 올립니다.

그들은 편지에서 피눈물의 언덕에서 다진 맹세대로 세멘트중산의 통음을 더욱 세차게 울려갈 결의를 우리 원수님께 삼가 아뢰이였다.

그런데 어찌 않았으랴.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이곳 로동계급이 올린 소박한 편지를 보아 주시고 상원세멘트련합기업소는 우리 당의 위대한 강성국가건설위업을 받드는 길에서 언제나 전초병이 되어야 한다고 사랑의 친필을 보내주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하늘같은 믿음이 담긴 친필서한을 심장깊이 새기고 산악같이 펼쳐나선 상원의 로동계급은 두레전 조선속도창조의 열풍을 세차게 일으켜 세멘트생산에서 장군님께서는 곧 풀을 담당하여온 기업소, 풍로가 있는 기업소, 증요대

린 2016년을 최고생산년도수준을 돌파한 그전해보다 더 높은 세멘트중산성과로 빛내인 자랑스런 영광을 해에도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앞장에서 전진단위의 영예를 펼쳐가고있는 상원세멘트련합기업소.

상원세멘트련합기업소가 받아안은 고귀한 칭호들은 질세의 위인들과 이곳 로동계급의 혈연적우대를 뜨겁게 이어주며 세멘트생산자들의 심장을 무한히 격동시키고있다.

값높은 칭호들을 언제나 마음속에 품어보며 상원세멘트련합기업소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불타는 맹세를 다진다.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강국념,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회주의강국건설위업을 세멘트중산으로 꽃이 만들어나가는 역전 기동, 추추들, 최고생산년도수준을 돌파하는 기적을 창조하였다.

본사기자 김정호

## 그 사랑, 그 믿음에 기여이 보답하리

지금 상원에는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다짐없는 감사와 경모의 정으로 새겨져 있어넘치고있다.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용감할 일을 한 우리들을 높이 내세워주시는 그 사랑, 그 믿음에 기여이 보답할 일입니다 우리 기업소의 전제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최고생산년도수준을 또다시 돌파하기 위한 파강한 공격전에 떨쳐나섰다.

우리들이 영웅적인 김일성-김정일로동계급의 혁명적기상과 본때를 남겼으며 파시해나가고있는것은 결코 남들보다 조건이 좋아서가 아니다.

조건이 불리하고 난관이 겹겹일수록 한량없는 사랑과 믿음을 안겨주시며 이끌어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자애로운 스승의 손길이 자랑스런 오늘을 안아왔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우리 시대의 영웅들은 위대한 수령, 위대한 당의 품속에서 태어났습니다.》

돌려한 우리들에게 친히 축하전문을 보내주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축하전문에서 위대한 조국전쟁의 시대를 열어나온 거창한 변혁과 창조물들은 당의 사상과 의도에 심장의 박동음 맞추고 백혈불굴의 의지로 난관을 맞받아 뚫고나가며 한의 세멘트라도 많이 생산하기 위하여 불철주야의 헌신적인 투쟁을 벌려온 동지들의 불타는 애국충정이 뜨겁게 깃들여있다고 치하해주시었다.

축하전문을 받아안는 나의 가슴은 이용할수 없는 격정으로 세차게 높여졌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우리 련합기업소를 굳게 믿고 내세워주시던 나날의 감동같은 사실들이 한꺼번에 어려와 눈사울이 젖어들었다.

그 위대한 별도의 나날에는 거창한 창조와 변혁의 전구들이 펼쳐질 때마다 상원의 로동계급을 제일먼저 불러주시는 믿음의 이야기도 있고 우리들의 자그마한 성과도 높이 평가해주시며 각별한 사랑을 담아 자신의 진정을 머뭇오시던 못 잊을 사연도 있다.

세멘트중산을 위한 투쟁에서 어렵고 힘든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밝혀주시는 귀중

한 가르침들은 그토록 대중의 무궁무진한 힘을 발동시키는 정치사업으로 되었다.

나를 믿고 지지해주시는 원수님께서는 우리들이 사회주의강국건설에서 전초병으로서의 사랑과 임무를 다해나감도록 절실함을 이끌어주시는 자애로운 어머니, 위대한 스승이시라는 심장의 체험이 저절로 리져나온다.

바로 그 사랑과 믿음이 있었기에 우리들은 나날이 배배해지는 혁명적 투쟁과 열정에 넘쳐 최고생산년도수준을 편이여 돌파할수 있었다.

정명 우리 상원방에서 이룩되는 모든 기적적성과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가 안아온 빛나는 결실이다.

나는 련합기업소의 생산을 책임진 일군으로서 경제조직과 생산시위를 보다 혁신적으로 꾸리고자 세멘트중산의 동음을 더 높이 울려가겠다. 그러하여 당의 구상과 의도를 말로써가 아니라 실천으로 만들어 나가는 상원로동계급의 자랑스러운 투쟁정신을 계속 빛내어나가는데 적극 기여하겠다.

상원세멘트련합기업소 지배인 로명영웅 윤재혁





# 대비약, 대혁신창조의 전열에서 힘차게 내달린다

## 일군들과 과들과 동계급

### 당정책관철의 추동력 - 3위 1체

조국연령의 용대한 설계도가 현실로 꽃피는 대전설전투쟁에 보내준 세멘트생산의 동음이 높고 울리는 연합기업소에 대중을 당정책관철전선에 추동하는 위대한 힘이다.

그것은 다음이 기업소의 당, 행정, 기술인원들의 책임적인 자각에 의해 보장되는 3위 1체이다.

경에 하는 최고명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지금 우리 인민들의 투쟁열의는 대단히 높으며 여기에 연합기업소의 대담하고 과감적인 작전과 능숙한 지휘, 이신작전의 일본새가 안받침되면 우리에게 쟁쟁 못할 요소도 없을 것 못할 난관도 없습니다.》

연합기업소 당, 행정, 기술인원들이 3위 1체를 철저히 보장해나가는 데서 주무는 과가 있다.

그것은 이 당, 행정, 기술인원들이 대중의 정신력을 총발동시켜 말려진 경제과업을 원만히 수행하는 투쟁과정에서 기업소적으 로 제기되는 문제를 함께 책임지는 령장으로서 모든 사업을 전진시켜나가는 것이다.

책임이 방대한 원료가 처리되고 수확된 실비들이 가공되는 연합기업소의 실정에서 세멘트생산과정에 제기되는 문제들은 실로 적지 않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어떤 문제가 제기되면 한

가정의 가장중립 무릎을 마주하고 진지하게 토론하여 원만히 풀어나가는 이 곳 일군들의 사업기풍은 진취적이다.

언제인가 1호소성로보수를 앞두고 연합기업소 광모부에서 보수전투계획을 세우기 위한 협의회가 끝났을 때였다.

당시 로력과 실비보장, 공사기간 등 전투작업이 민중없이 세워졌다는 것이 광모부일군들의 생각이었다. 그때 기업소당 위원회에서는 또 다른 협의회가 주시어 진행되었다.

당책임일군의 발기로 열린 협의회는 보수전투의 전과정을 당위원회적인 사업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문제들이 토의되었다. 회의에서는 공사량이 방대한 조건에서 당일군들도 한계공정의 달라고나 화선시정차사업을 힘있게 밀러가야 하였다.

한편 공사과정에 걸린 문제들은 광모부일군들과 힘을 합쳐 해결해야 하였다. 그리고 전투원들에 대한 후방사업도 놓치지 말고 진행할데 대한 과업들이 명백히 제시되었다.

이 날 회의장에서 나온 당위원회 일군들은 하나의 사안에 접하게 되었다.

당책임일군이 협의회를 시작하기에 앞서 집에서 기르던 집짐승을 낚아서 보수전투현장에 데려왔었다. 그 후 당위원회

일군들은 보수전투장에 나가 말은 대상으로 걸린 문제들을 앞장에서 풀어나갔고 전투원들을 위한 후방사업에도 경제적으로 현실을 했다. 이렇게 당위원회적인 사업이 안받침된 결과 소성로보수전투기간에 비약적인 성과를 이룩하였다.

이것은 기업소적으로 제기되는 크고작은 일들을 당, 행정일군들이 함께 어깨걸고 풀어나가는 과정에 있는 한까지 실례해 불과하다.

연합기업소에 가면 흔히 지배인이 걱정하면 다음날로 문제가 해결된다는 말을 듣게 된다. 그만큼 행정일군들의 생산지휘과정에 걸린 문제가 있으면 당조직이 함께 책임지는 령장에서 원만히 풀어나가는 것이다.

기업소의 주강장에서는 종전보다 수명이 훨씬 늘어난 강물생산과정에 파이프 부속품이 부족하여도 놓치지 말고 진행할데 대한 과업들이 명백히 제시되었다.

이렇게 당, 행정, 기술인원들이 한마음한뜻이 되어 대중의 정신력을 발동시키고 걸린 고리를 능숙히 풀어나가는 실례는 수도무하다.

당일군들이 기업소적인 인생산정에서 참가하여 실적이 낮은

단위일군들을 제발시키는 사업을 방법론있게 진행하고있는것을 본받을만 한것이다.

우리 당에 기쁨을 드리는 기적장조의 주인공인 종업원모두가 귀중한 혁명동지이고 그들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수있는 기업소책임일군들의 주진이 다. 여기에 행정일군들의 총화도 임대이다. 걸림이 있는 단위들이 지적되면 당책임일군부러가 그 단위에 나가 실례를 구체적으로 료해하고 실비관리와 자재절약 사업을 비롯한 제기되는 문제들에 대하여 신속한 대책을 세우도록 하는것이 보전적이다.

합쳐진 힘의 위력은 크다. 대중앞에서 구명을 내리기 전에 당, 행정, 기술인원들이 서로 모여야 진지한 토론을 거듭하고 믿음없는 조직사업을 앞세우는 일반에 의해 연합기업소에서는 최근에 실비관리, 기술관리사업이 당의 명도명령을 고수하기 위한 사업으로 확고히 진전되어 제때없는 성과들이 이룩되고 있다.

그뿐이 아니다.

주제화된 생산과정을 확립하는 문제와 생산과 과과기술을 밀착시키는 문제를 비롯한 어렵고 방대한 일감들을 손조용히 수행하는 사실은 하나에서 열까지 당정책을 두어찌에 걸머진 일군들의 자각을 가지고 기

적과 혁신의 불씨가 되어 내달리는 기업소일군들의 사업기풍을 잘 보여주고있다.

이 곳 일군들의 사업에서 좋은 점은 당, 행정, 기술인원들이 서로 위하고 사심없이 떠맡는데서도 남김없이 맡혀지고있는것이다.

당책임일군이 예술공연편과 진학사업이 제기되면 먼저 행정, 기술인원들을 앞세우고 좋은 일이 생기면 지배인이 당일군들을 먼저 생각하는 기풍은 기업소안의 모든 일군들을 당정책관철에 힘있게 떠맡는 추동력으로 되고있다.

진전되지 않는 기관차를 생각할수 없듯이 연합기업소에서 이룩되는 성과는 이렇듯 당정책관철을 위해 헌신의 편차도 없지않고 보조를 맞추어나가는 이 곳 책임일군들의 헌신적인 일반성과 밀접히 연관되어있다.

동지적의리로 걸림된 일군들이 있는 단위에서는 기적이 창조되는 법이다.

우리 당에서 세멘트보장문제 가 제기될 때마다 제일먼저 찾는 이 곳 기업소에서 최고생산년도를 준비는 언제나 들려가고있는 실마를 그것을 확증해주고있으며 일군들의 3위 1체가 위대한 힘을 이겨 대혁신창조의 열풍이 세차게 휘몰아치게 하고있는 사실이 그에 대한 대답을 주고있다.

본사기자 지 현 철

위대한 명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관강한 난관극복의 정신, 간고분투의 정신으로 하는것이 자력갱생이며 그것으로 하여 빛나는것이 자력갱생선구자들의 투쟁행로입니다.》

지난 3월말 상원석회석광산의 어느 한 계급장에서 긴급상황이 조성되었다.

광석생산량이 늘어나는 속에 미처 처리하지 못한 바닷가 푸드기 쌓여있었다. 바닷물을 처리하지 않고도 할일이 만연은 실히 걸려야 하였다. 그런데 이 바닷가 불과 활용만에 처리되었다.

이 기적은 어떻게 일어났는가.

사실 로력과 실비가 긴장한 조건에서 최단기간에 방대한 양의 바닷물을 처리한다는것은 어려운 일이었다. 하지만 광산일군들과 광부들의 자각은 남달랐다.

당의 크나큰 믿음과 애고 사는 우리 상원의 진초병들에게 있어서 사소한 당보나 침체도 허용될수 없다.

이것이 온 광산에 금이건 설사의 의지였다.

그해 후방부문에 소속된 봉천계급까지 총동원된 속에 광산의 계급장에는 어떤 승경이 약동했는가.

상차기와 굴착기, 적재기뿐 비롯한 중기계들이 무심게 용을 쓰고 제방장에서 파쇄장을 향해 걸추한 원전기체들간에 사화주의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졌다.

한교대에 무려 1200여의 운반설비가 기록되었다.

운방직장 전투원들은 막도상차진출을 1.6배로 끌어올렸다.

종업원 가족들도 함께 나섰다.

얼굴간의 전투판에 10여만㎡의 바닷산이 통제도 없지 않는 기적은 이렇게 창조되었다.

광산에서 온 한해동인 세멘트생산의 기본원료인 석회석보장을 위해 비약의 승경이 약동할 때 연합기업소이해 최전방에서는 또 어떤 기적장조의 열풍이 휘몰아쳤던가.

석탄생산이자 세멘트생산이라는 자각을 가지고 떨쳐나선 단광의 지하전투들은 전투기록장마다에 자랑스러운 기록을 새기었다.

전진정의 신승식급진2소대 전투원들이 년간계획을 훨씬 앞당겨 끝낸데 이어 서동경의 김철재4소대와 정명경 단부들도 석탄생산계획수행에서 남다

른 위훈을 떨치었다.

김진청년동력대원들과 서동경의 백종철급진소대원들이 때때로 급진행을 계획보다 10m씩 초과수행하면서 원전압만큼 힘차게 일어나갈 때 김철민제단1소대와 김철수제단6소대의 한부들도 월계회를 1.5배이상 넘쳐 수행하였다.

생산조건은 의외로 어려웠다. 그러나 대전설전투에 필요한 세멘트생산과제수행에 자신들의 위훈도 갖게 된다. 자각을 가지고 분발해나선 이 곳 전투원들은 실로 자랑한 헌신적성과 원전기체들을 새기었다.

오영철경쟁을 비롯한 서동경의 일군들과 단부들은 배달30여㎡에 달하는 동반을 자체로 최우려하고 정철과 정대의 걸터도 자체로 만들어 보강하면서 석탄생산을 종단없이 추진하였다.

시련속에서도 꺼지지 않고 생산적열의를 불붙여 세차게 지어올리는것이 자력갱생의 선구자들이다.

자기 명도자에 대한 절대불변의 총명과 사상경건의 의지, 단광의 지하전투들은 전투기록장마다에 자랑스러운 기록을 새기었다.

전진정의 신승식급진2소대 전투원들이 년간계획을 훨씬 앞당겨 끝낸데 이어 서동경의 김철재4소대와 정명경 단부들도 석탄생산계획수행에서 남다

본사기자

상원광산은 연합기업소가 세멘트생산에서 편이 이 최고생산년도를수준을 강행동파하는데 크게 이바지하는 단위이다.

이 곳 일군들과 광부들은 지난 9월말까지 기업소적인 원료보장단위중에서 남먼저 년간계획을 완수하였다. 원형생산과 함께 기본급진과은미급진을 확고히 앞세워나가는 광산의 생산전망도 밝판이었다.

이러한 성과들은 이 곳 일군들과 광부들의 앙양된 열의를 잘 말해주고 있다.

경애하는 최고명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자백자강의 정신을 가져야 그 어떤 시련과 난관도 뚫고나갈수 있으며 최약의 조건에서도 최강의 성과를 이룩할수 있습니다.》

올해 이 곳 일군들과 광부들이 이룩한 성과는 대단하다.

제급작업의 기계화비율을 높이기 위해 자체설계에 맞게 도입된 적재기들이 드문데 막강에서 시공자가 가능하고 있다.

두개 계급로 보강된 파쇄계통이 종전보다 2배의 능률을 얻으로써 계급에서 나오는 광석은 지금 대량적으로 처리되

고되었다.

이 성과들이 결코 저급로 이룩되는것은 아니다.

지난 6월초 어느날 광산의 1장에서 일어난 일군이 봉착장조를 발견한것은 그날 새벽 3시였다.

불락을 예견한 일군에 의해 현장에 있던 로력이 즉시에 철수되어 불발된 제방장은 일시에 고조되었다.

광산적인 생산전에서 큰 붐을 일으킨 1장의 여러 막강에 걸린 작업은 원형생산계획을 수행함에 있어서 뜻밖의 난관이 아닐수 없었다.

이 경우 광석생산계획을 미달한다고 해도 별로 닦한 사람이 없었다.

하지만 불굴의 의지라고 막강안으로 제방3, 4소대 광부들이 서슴없이 들어섰다. 적재기와 착암기를 비롯한 실비들을 끌어내는 전투가 치열하게 벌어졌다.

이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막강에서 번민기와 제방을 비롯한 제갈수단을 한치한지 끌어내던 사실을 당시 광산적으로 아는 사람보다 모르는 사람이 더 많았다.

모두가 육탄이 되어 실비들을 끌어내던 그때 봉착소보다 전도가 수심만 낮은 막강에서는 새로운 생산준비를 위한 또 하나의 전투가 벌어졌다.

당의 크나큰 믿음을 실감없이 감직한 검사관원들은 이렇게 어려웠을 걸려야 한다던 1장에서 광석생산을 불과 5일만에 또다시 시작하였다.

광산의 일군들과 광부들에게 있어서 올해의 하루하루는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의 악랄한 경제책동을 저지하기 위한 투쟁속에 이어지는 격동의 나날들이다.

하기에 조종금지제인을 비롯한 광산일군들의 치밀한 작전속에서 재급작업에 필요한 실비부품과 주야를 일일할수 있는 보여주기사업이 실로성있게 진행된 때로부터 실비들의 수명은 훨씬 늘어나고 광석제급들의 원당 자재소비가 종전에 비해 줄어들었다.

년간계획을 기한전에 앞당겨 끝낸 2개의 김철재4소대 광부들을 비롯한 여러 단위 전투원들과 가까운 기간에 광산적인 기본생산량을 도맡아 진행할 조부안고 높은 기술기능을 소유하기 위해 분발해나선 4, 15기 기술혁신동력대원들...

어찌 그뿐이라.

광차들의 머무름시간을 줄이면서 교대간 사화주의중산경쟁의 불길같은 높은 광차지비실적을 기록하고있는 운방경의 운안공들과 후방사업도 전루하는 비상한 자각을 가지고 광부들을 위해 애없는 노력을 기울이는 류만준동무를 비롯한 일군들과 종업원들모두가 광산이 자랑하는 혁신자들이다.

당의 크나큰 믿음에 언세나 새 기적장조로 보답하려는 이런 위훈장조자들의 헌신적인 투쟁에 떠받들려 상성평에서 대비약장조의 열풍은 갈수록 더욱 세차게 휘몰아치고있다.

본사기자

위대한 명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진정으로 애국을 하려면 애국의 마음을 가지고 애국적인 행동을 해야 합니다.》

은 나라 녀인들이 다 그리웠지만 명랑의 녀인들에게 있어서 자기 남편만큼, 자기 자식들만큼 자랑스러운 사람들은 없다.

경애하는 최고명도자동지께서는 우리 당의 현대 강국건설위업을 받들어나가는 진초병이 되라는 크나큰 믿음을 인겨주시는 상원의 모용계급이었다.

그들 남편들말에, 자신들말에 맺혔고있었다.

그들은 한시감없이 떨쳐나섰다. 해마다 2 560여의 비터안을 선별하고 공무거기에 필요한 수백의 파발을 수집하여 세

위대한 명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진정으로 애국을 하려면 애국의 마음을 가지고 애국적인 행동을 해야 합니다.》

은 나라 녀인들이 다 그리웠지만 명랑의 녀인들에게 있어서 자기 남편만큼, 자기 자식들만큼 자랑스러운 사람들은 없다.

경애하는 최고명도자동지께서는 우리 당의 현대 강국건설위업을 받들어나가는 진초병이 되라는 크나큰 믿음을 인겨주시는 상원의 모용계급이었다.

그들 남편들말에, 자신들말에 맺혔고있었다.

그들은 한시감없이 떨쳐나섰다. 해마다 2 560여의 비터안을 선별하고 공무거기에 필요한 수백의 파발을 수집하여 세

관리에 쓸 초미를 비롯한 소공구들, 벨트에는 공무거기에 가져다올 파발을 이었다.

뜨거웠다. 많구지마더 세멘트 생산을 위하고 나라를 위한는 소중한 마음이 가득 실려있는셈이었다. 한동안 아무 말없이 핵임일군은 나병원의 손을 잡고 좋은 일을 하려고 한다. 정말 고맙다고 거듭 말하였다. 그러자 나병원은 두손을 내저으며 이렇게 말했다.

《세멘트생산에서 최고생산년도를수준을 올리는것은 원수님의 축하결문을 받아안은 우리 남편들이 아닌니까. 세멘트만 광물 생산해주시고요, 세멘트 생산을 위한 일이라면 우리

이런 생각이 미치지 그의 결심은 더욱 굳어졌다. 그는 기쁨에도 힘들 때도 늘 먼저 웃고 하던 원전기체들을 땀이주지고 하는것은 분명 함실동무였다.

이름난 그는 3년동안 걸어온 슬픈길에 또다시 나섰다.

기특한 처녀들

소성직장 소성공들은 리옥심, 인함실동무들을 두고 일 잘하고 마음씨좋은 처녀들이라고 늘 칭찬한다.

말년직장에 출근한 소성공들은 휴게실에 나란히 놓여있는 공구머리들을 보게 되었다. 깨끗하게 손질해놓은 주머리에는

안해들이 무슨 일이나 다 맡겼습니다.》

배려 미치막막이면 이들은 상원전기체에 정히 모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친필비말에 시군 한에서 자랑스럽고 행복합니다.》

로용계급을 위해 바쳐온 삶을 자부하는 그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언제나 믿거들이 되어 남편과 자식들을 달랠이 떠맡은 상원세멘트연합기업소 나병원의 모습을 되새겨보았다.

우리 원수님께서 아시는 상원의 로용계급, 우리들의 현대 한 사회주의 강국건설위업을 앞장에서 서는 진초병의 인해들의 모습을!

본사기자

일터에 꽃피는 아름다운 이야기

이런 생각이 미치지 그의 결심은 더욱 굳어졌다. 그는 기쁨에도 힘들 때도 늘 먼저 웃고 하던 원전기체들을 땀이주지고 하는것은 분명 함실동무였다.

이름난 그는 3년동안 걸어온 슬픈길에 또다시 나섰다.

기특한 처녀들

소성직장 소성공들은 리옥심, 인함실동무들을 두고 일 잘하고 마음씨좋은 처녀들이라고 늘 칭찬한다.

말년직장에 출근한 소성공들은 휴게실에 나란히 놓여있는 공구머리들을 보게 되었다. 깨끗하게 손질해놓은 주머리에는

심이 더욱 굳어졌다.

집단을 위한 마음

주강직장 주물2작업반 조형공들인 최항이, 김수정, 장은필동무들은 직장이 자랑하는 청년들이다.

언제나 청년들의 일장에서 거울이 되고 거수가 되어온 그들은 올해초 경애하는 최고명도자동지의 신년사를 받아인고 이렇게 약속했다.

올해에도 세멘트를 증산하여 경애하는 최고명도자동지께 기쁨을 드리자고.

그 후 최항이동무를 비롯한 주강직장 청년들은 많은 일을 할

달뿐 아니라 좋은 일도 스스로 찾아냈다.

얼마전 교대시간에 현장을 돌아보면 주물2작업반 반장 리상환동무는 기대주면서 분주히 오가는 청년들을 보게 되었다. 최항이동무가 주물기의 동체를 열심히 다루고있는가 하면 장은필동무와 김수정동무는 다음교대 조정작업에 필요한 혼합물을 준비하고있었다. 교대를 바치고도 일미를 뜨지 못하는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는 작업반장의 마음은 뜨거웠다. 그런 마음들이 집단의 화목을 이루는 뿌리가 되고 그런 집단주의기풍이 혁신적 성과를 안이오는지 아니라.

본사기자 김 진 명













